

AUTHOR 고재수

TITLE 개혁주의 교회

IN 월간고신

76호 (1, 1988): 50-53.

77호 (2, 1988): 47-50.

78호 (3, 1988): 41-45.

79호 (4, 1988): 42-47.

80호 (5, 1988): 41-45.

81호 (6, 1988): 58-63.

82호 (7, 1988): 46-51.

85호 (10, 1988): 42-46.

86호 (11, 1988): 40-44.

87호 (12, 1988): 49-53.

화란개혁교회든 요한칼빈의 영향을 받았다



화란개혁교회의 교육 선교사로 파송되어 고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월간고신

편집부에서 이번에 화란 개혁교회를 포함한 자매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제공하는 새로운 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이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장로교 고려파와 화란 개혁교회는 하늘에 계신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서로 자매관계를 맺었다.

형제 자매들은 그들이 비록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서로의 소식을 알고 싶어한다. 마찬가지로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한국교회와 화란교회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매교회의 가족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할 것이다. 더우기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아버지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한다.

월간고신 편집부는 내게 화란 자매교회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한다. 소식을 쓸 시간과 또 알릴만한 주제가 매월마다 있게 될 지는 모르지만 화란 자매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 란에서 전달하고 논의할 생각이다.

이번 호가 첫번째이므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박도호(Batteau) 교수가 지난 9월 고신교단 총회에서 했던 인삿말의 내용을 여기 옮겨 적으려고 하는데 이 인삿말에는 화란 자매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이 설명되어 있다. 필자인 박도호 교수는 미국 출신으로 하버드 대학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한 뒤 화란 자유대학과 캄펜신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는 화란 개혁교회의 목사이며, 1980년에 한국으로 온 이후 부산 고신대학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전공은 교의학(조직신학)이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형제 여러분, 화란 개혁교회를 대표하여 저는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 교회가 자매관계를 가지지 시작한지가 약 18년 되었는데 이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볼때 아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표시들

이와같은 우리 두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고 있는 첫째 표시는 지금 화란에 있는 저희들의 캄펜 신학 대학원에서 고신의 세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은 박사과정에 들어갔고 다른 두 학생들은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우리 두 교회의 연합을 증명하는 것은 고신대학과 고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생들에게 교의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고재수 교수와 저 자신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경우에 미래에는 우리 두 교회가 교육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어떻게 협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많이 생각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의 영역에도 협력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화란에 있는 개혁교회에 관한 몇가지

저희의 역사적인 뿌리는 16세기 종교

스칼더의 신학과 같이 교회의 하나됨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교회는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며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 일해야 합니다.

개혁이며, 특히 유명한 개혁자였던 칼빈으로 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 저희 화란 교회는 세가지 신앙고백을 채택했는데 네덜란드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리고 아르미니안 주의를 거부하는 도르트 신경입니다. 다음과 같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번째 문답은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 신앙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살거나 죽거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인가?

답: 몸과 영혼이 살거나 죽거나 내 자신에게 속한것이 아니라 나의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이다.

저희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16세기 부터 지금까지 주일 오후 예배때는 항상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기초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Sola Scriptura(오직 성경), Sola Gratia(오직 은혜), 그리고 Sola Fide(오직 믿음)의 세가지 슬로건은 신앙고백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약 십일만명의 교인이 있으며 교회 수는 약 이백 육십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신학대학원은 캠펜에 있고, 또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화란 개혁교회가 우리 자신의 교육 기관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19세기 신학자이었던 카이퍼(Abraham Kuyper)의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카이퍼의 영향으로 저희들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그 학교들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일일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학교육 뿐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Nederlands Dagblad 라는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정치적 차원에서 개혁정치 정당이란 정당을 가지고 있는데 화란의 상원과 하원에 각각 한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클라스 스킨더와 같은 신학자들이 저희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는 캠펜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저희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교의학의 캠퍼우스(Kamphus) 교수, 윤리학의 구약신학의 Ohmann, 다우마(Douma) 실천신학의 트림프(Trimp), 신약 신학의 판 브루헌(Van Bruggen) 교수등이 있습니다. '86년에 오만(Ohman) 교수는 고려

신학 대학원의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강의하신 바가 있으며 그분의 소논문이 고려신학보 12집에 번역되어 실려 있습니다. 또한 트림프 교수의 <설교학 강의>란 책이 87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의 신학적인 저작들이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에 의하여 화란어로 번역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개혁교회국제협의회(I. C. R. C. 즉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med Churches)는 1989년에 캐나다에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의 대표자도 여기에 참석하리라 믿습니다.

저희의 교회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교회위에 성령을 내려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쳐줄 의무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자매 관계는 약 18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희들은 서로 배우고 가르쳐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의 교회가 최근 단군신화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또한 한국의 정치적인 발전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중대한 순간에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위에서 민주화에 대한 올바른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아름답고 포괄적인 진

리를 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화란 교회는 한상동 목사님의 생애에 대한 책을 통해서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의 교회도 총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총회는 삼년마다 열리게 되는데 대개 대 여섯 달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열리고 있는 총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얼마전에 국제적인 관계에 대해서 교회 일치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K. 스킨더의 신학과 같이 교회의 하나됨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교회는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며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와같이 기도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론적으로 저희 화란 교회는 여러분의 총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부요하게 내려 주시기를 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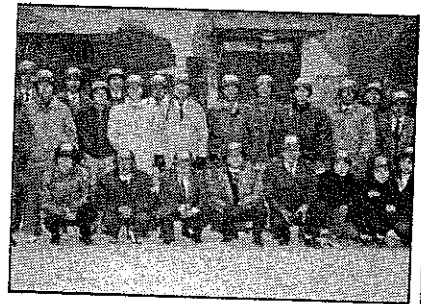
전국 C. E. 연합회 전 방장병 위문

전국 C. E. 연합회는 회장 이강호 장로를 중심으로 임부장들이 1987년 12월 7일~8일에 군선교대회 및 전방 장병위문을 갔다.

본 교단 군목 단장이 근무하는 ○○사단을 방문하여 군선교 헌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군국장병들을 위문했다.

또한 제2땅굴 현장을 둘러보고 조국통일과 북한에 있는 동포를 위하여 기도회도 가졌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거창노회 C. E. 연합회 창립기념예배를 거창교회당에서 드렸다. 70여명이 모인 이날 총회에서 김용화 집사를 회장으로 뽑았으며 최연석 목사의 개회 설교와 전국 C. E. 연합회 회장 이강호 장로가 C. E. 기를 전달했다.



의 증인들로 구성한다.

4. 체험적 차원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것은 곧 실제적인 체험이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깊은 감동을 받은(120 문도가) 놀라운 체험이었다. 우리는 사도행전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체험의 실재를 파 소 평가하거나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기쁨과 평안, 그리고 복음전파에 관한 열심으로 가득하였다.

이 체험은 그들이 중생한 다음에 겪은 것이다. 그럼 이것도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겪어야 할, 성령의 제2의 축복으로서의 체험이라 할 수 있는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때가 왔을 때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며, 구속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의 성취에 도달한 때에 살았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세례는 먼저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체험으로만 볼 수 없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복음을 처음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동시에 성령을 받은 경우도 있다(행 10장). 따라서 사도행전 2장 사건은 성령받는데 대한 영구적 모델이 될 수 없다.

오순절 사건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의 일차적 의의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변하여 담대하게 되는 능력의 체험으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이 견해는 “저희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눅 24: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새 시대의 개막이 우선적이고 능력을 입는 체험은 부차적임을 잊어서 안된다.

52, 53)고 하신 말씀과 모순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누가는 부활 이후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이 변화받은 체험을 보여주고 있다. 오순절 사건은 진정 능력의 체험이었다. 그러나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새 시대의 개막이 우선적이고, 능력을 입는 체험은 부차적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도행전은 사람이 새 시대 또는 크리스찬의 삶에 한 번 이상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신자가 여러번 능력을 입는 체험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행 4 : 8, 31 : 9 : 17 : 13 : 9). 이는 성령의 충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끝으로 신약 아무 곳에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없으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은 있다(엡 5 : 18)는 점이다. (계속)♣

선교기도회가 있습니다

총회선교부 사무실에서는 매월 첫 목요일, 사상교회에서는 둘째 화요일에 모입니다. 시간은 7시인데 선교사 특강과 기도회가 있습니다. 선교헌신자나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교회개혁신앙에 대해



화란개혁교회의 교육 선교사로 파송되어 고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1. 1987년 총회의 결정

화란 개혁교회의 총회*는 작년 10월 말에 교회의 통일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했다. 그것은 다른 교회 즉 기독교 개혁교회와 의논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일이다. 화란에서 개혁교회는 교인 수가 110,000명 이상이며 교회수는 약 260개이다. 기독교개혁교회는 교인수가 75,000명 이상이며 교회수는 약 185개이다. 이 통계상으로 이 교회들은 화란 개신교 중 세번째와 네번째이다.

기독교개혁교회와 의논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결정은 이전의 총회(1984) 총회결정과 비교할 때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1984년 총회의 결정은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독교개혁교회의 총회에 편지를 보내기로 한 것이었다. 기독교개혁교회의 총회는 이것에 대하여 위원회의 차원에서 서로 의논하자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이 요청은 개혁교회 총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의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두 교회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연구하는데 있다. 하지만 숫자상으로 세번째와 네번째 위치를 차지한 이 두 교회가 빨리 통일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 화란에는 개혁교회라 번역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교단이 3개 있다. 1) 개혁교회(단수)라 불리워지는 교단은 이전의 국교회이며 2) 개혁교회들(복수)이라 불리워지는 교단이 있고 3) 개혁교회들(자유)라 불리우는 교단 등이다. 하지만 이 '자유'라는 말은 이교단의 공식명칭에 포함되지 않고, 자유주의적 교단인 것 같은 인상을 주므로 잘 사용할 수 없다. 이 세번째 교단이 한국장로교(고신)의 자매교회인데, 앞으로 '개혁교회라' 불리워질 것이다. 이 개혁교회의 총회는 3년에 1번씩 모이는데 1987년에도 모였다.

2. 1834~1944

개혁교회와 기독교개혁교회는 모두 1834년 화란 국교회에서 일어난 분열사건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당시에 개혁교회를 지키고 가르친 목사 한 분이 휴직되고 이어 면직되었다. 그러나 그 목사가 봉사하던 교회와 그 당회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 목사가 이단을 말하지 않고 성경적 교리를 전달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로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는 교단으로 부터 분리되어 나왔다. 또 다른 지역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그들과 합세했는데 이 운동의 이름은 '분리시킴'이 되었다.

그 교회와 목사는 그들이 왜 교단에서 부터 분리되어야만 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공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그들은 분리시킴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교회의 통일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썼다. '우리는 모든 참된 개혁주의 교인들과 교제할 것과,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에 근거된 모든 교회들과 통일시킬 것을 공포한다.'

개혁교회와 기독교개혁교회는 모두 이 '분리시킴'이라 불리워진 개혁운동에서 생겨났다. 기독교개혁교회는 1892년에 생겼다. 그때 '분리시킴'에서 나온 교회들은 다른 교단 곧 A. 카이퍼(Kuyper)가 속한 교단과 통일되었지만 그 통일에 동참하려 하지 않은 교회들은 기독교개혁교회가 되었다. 기독교개혁교회는 그 후에도 약 50년 동안 통일된 교회와 아무런 의논도 원하지 않았다.

개혁교회는 1944년에 생겼는데 그때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면직되었고 교회들이 교단에서 밀려나오게 되었다. 그들은 바로 다음해인 1945, 1946년에 기독교개혁교회와 의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의논의 목표는 처음부터 그들의 교회들 사이에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교회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의논이 순조롭게 되지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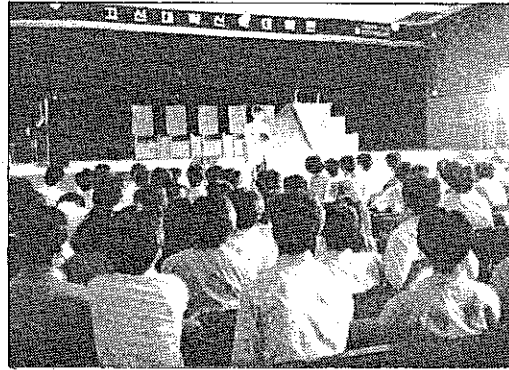
3. 1944~1985

개혁교회와 기독교개혁교회 사이의 의논기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위원회를 통한 의논이고 둘째가 총회의 편지를 통한 의논이다.

이 두 교회가 임명한 위원회는 서로 토론했고 서로에게 편지를 썼다. 그 교제의 첫째 결과는 개혁교회와 기독교개혁교회가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고백의 기초에서 있다는 것을 인정했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위원회는 이 교회들의 기초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이 1834년에 그들의 조상이 말한대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예를쓰면 되지 않을까 하고 물었다.

기독교개혁교회의 위원회는 아직은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여러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개혁교회는 가정된 증생에 대한 카이퍼의 교리를 참으로 부정했는가? 또 개혁교회의 설교는 어떠한가? 그 설교방법은 객관적이지 않은가? 개혁교회는 모든 청중들이 증생한



신자라는 전제를 하고 있지 않은가? 또 교회에 대한 고백도 지적했는데 개혁교회에서는 교회론이 절대화되어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들이 나왔다.

개혁교회의 위원회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 지방교회사이엔 교제가 시작되었다. 어떤 경우엔 교제가 금방 실패했지만 다른 경우에는 참된 이해와 교제를 이루게 되었다. 여러 지방교회는 함께 모였고 강단도 교류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즉 위원회의 차원에서는 의논이 조금도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개혁교회의 총회는 위원회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총회에 편지를 씌으로써 의논을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교제의 두번째 기간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사실 두 교회 사이의 간격이 더 커져버렸다. 설교방법과 교회관에 대한 기독교개혁교회의 반대는 여전히 있었다. 또 개혁교회에는 기독교개혁교회에 대한 여러 반대의 의견이 생겼다. 예를들면 기독교개혁교회가 ICC라는 단체

에 가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ICC는 개혁교회의 고백서를 기초로 삼지 않는 단체였다. 그런데 기독교개혁교회는 그 ICC에 가입함으로써 성령과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이라는 자기 기초를 약화시키지 않았는가? 또 후에 기독교개혁교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몇몇 교수들은 창 3장의 여러 요소와 또 신약 여러 사건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서에 표현된 성경관과 충돌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나왔다.

개혁교회의 총회는 1984년에 기독교개혁교회 총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서 밝혀 놓은 공식적인 비판의 견해가 그들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기독교개혁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교회가 공적으로 손상되었다고 느꼈다. 교회들 사이의 교제는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 사실 그것은 교제의 마지막인 것 같았다.

4. 새로운 시작

1985년의 기독교개혁교회 총회는 개혁교회의 다음 총회에 편지를 쓰려고 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총회 사이에 공적인

편지를 쓰는 것이 교계의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 대신 위원회를 통하여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1987년의 개혁교회 총회는 교계 문제를 며칠 동안 토론한 후 이 요청을 받아들여하기로 하였다. 그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의 것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처럼 한 성령으로 한 주님을 경배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교회적 교제를 강권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믿음의 통일 안에서 모이게 되기 위함이다.'

기독교개혁교회에서는 적극적인 발전이 나타났다-그 교회에선 화목에 대해 비성경적 교리를 전달한 목사가 면직되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권징이 실제로 있다-기독교 개혁교회의 한 지도자는 개혁교회가 고백서에 표현된 교회론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기독교개혁교회의 다른 지도자는 그들의 신학교 교수들의 성경관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방교회 사이에도 다시 교제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기독교개혁교회의 한 지도자는 낙관적인 느낌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개혁교회가 통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상황을 잘 토론하는 것이다. 이처럼 통일문제에 있어서 개혁교회와 기독교개혁교회 사이에는 접근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남아있는 것 같다.

결론

개혁교회가 같은 기초를 가지는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강조한 것은 옳은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1834년의 발표에서 약속한 것일뿐만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교리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요 17:21). 또 사도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고(빌 2:2),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로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라고 하였다.

양편은 모두 이 성경적 규칙을 인정했다. 그때 기독교개혁교회는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너무 집중적으로 생각했고 그 통일이 자기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두려워했다. 또 개혁교회는 오랫동안 자기 자기 길로 간 교회들이 쉽게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 같다. 그 교회는 자주 억지로 통일을 이루려한 것같은 인상을 주었다.

교회의 통일이 어려운 일임을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개혁교회와 기독교개혁교회가 참으로 그리고 성급하지 않게 통일의 길로 나아가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

임종만 예화보

임종만
부서울교회 담임목사
본지는설위헌

공황을 심었더니

6·25 사변 직전에 어느 가난한 집 아들이 맹장염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입원비가 없다고 병원마다 쫓겨났다. 그러다가 다 죽어가는 것을 끌어다가 어느 병원 문 밖에 엎어다 놓고 통사정을 했더니 의사가 무료로 수술해서 살려 주었다. 그 후 6·25 동란이 터지고 이 의사는 피난가지 못하고 숨어 있다가 공산당에 붙들려가 인민재판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어느 젊은 청년이 나타나더니 "여러분, 이 사람은 노동자, 농민을 살려준 가난한 자의 편입니다. 제가 돈이 없어 수술 받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무료로 수술해서 살려 주었습니다"하고 열심히 변명하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살려준 그 소년이었다는 것이다. 잠 19:17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고 하셨다.

공포의 에이즈

오늘날 세계적으로 큰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은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라는 병이다. 신문, 잡

지 같은데 보면 거의 매호마다 AIDS에 관한 기사와 사진이 나온다. 증기 하나가 나도 낮지 않고 그대로 썩어 들어가 죽는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의사도 간호원도 치료하기 싫어하고 죽어도 송장을 치우기 싫어한다.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검정 비닐주머니에 넣어서 화장해 버린다고 한다.

그러니 암보다 무서운 것이다. 암은 간호하는 사람이라도 옆에 있어 주지만 AIDS에 걸린 환자는 덩그런 방에 혼자 누워 전화기로 요구 사항을 말한다.

스웨덴에서 아이들 한테까지 콘돔을 쓰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병자의 73% 이상이 음란한 생활 특히 동성연애자들이나 마약중독자라고 한다. 소돔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받듯이 음란하고 방탕했던 폼페이 도시가 화산폭발로 멸망하듯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내린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레 18:22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고 하셨다.

배은망덕자는 인류공동의 적

쇼나단 스웨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릴리풋션이란

교리들을 설명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성령의 특별하신 도움에 의하여 오류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보호를 받고 있는 카톨릭 교회에게서……우리는 그것들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다”(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Williams-on P. B).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계획과 필요한 진리를 성경에 계시하셨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 참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해석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알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사람의 직접적인 관계를 부정하고 교회(조직화된 유행교회)가 중간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서운 음모가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교회는 가르치는 계급과 가르침을 받는 두 계급 즉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으로 양분되는 것이다.

그러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며 판정하는 위치에 있게 되고 이는 곧 교인들로 하여금 불명료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명료한 사람의 해석을 더 신임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개혁주의자들은 이러한 음모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간명하고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최종적인 해석권은 성경 자체에 있다. 교회의 성경해석은 언제나 성경 자체의 명료한 표현보다 하위에 있는 것이다. 교회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교회에 권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신조도 그것들이 성경의 진리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서 진리로 확립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부분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책은 아니다.

벤허 3:16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것은 성경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기에 성경은 쉬지않고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여 그 오묘한 뜻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성경을 읽고 참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지체하지 말고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자를 찾아가서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다같이 성경 자체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입장을 떠나서 독자적인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성경만이 성경의 최종적인 해석권자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선교기도회가 있습니다

선교부에서는 매월 첫 목요일 선교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헌신자나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T. 43-6170

개혁주의교회 ③

한 목사의 면직과 관련하여 우리 교회가 내린 결정



화란개혁교회의 교육 선교사로 파송되어 고 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고 재 수

필자는

화란 개혁교회를 동요시켰고, 교인들 사이에서 많이 토론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어느 목사의 면직사건을 소개하려 한다. 이 일은 지난 호에서 말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1987년의 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 두가지 결정 사이의 유사점은 둘 다 교회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지난번처럼 좋은 것이 아니다. 지난 호에 소개했던 소식은 화란 개혁교회가 교회의 통일에 대하여 다른 교회와 토론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호에 소개하는 사건은 한 목사가 그의 교회관 때문에 면직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고교시절 같은 반이었고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후일 캠퍼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같은 학년이었고 공부하던 대부분의 시간을 그와 나는 같은 집에서 살았다. 이 때문에, 그 목사가 면직된 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필자로서는 그 문제를 이야기 하기란 여간 가

기슴 아픈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생활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음이 현실이 아닌가!

배경

그 목사로 인하여 생겨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교회론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회는 신자의 것도 아니고, 목사의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값진 피를 흘려 단지 구원받을 개인을 사신 것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이 개인들을 백성으로 모으고 계신다. 성경은 그것을 양무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모으려고 하신다. 바로 이것이 교회이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가 모아 주시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결정권은 역시 그리스도에게 있다. 지난 번 글에서 토론된 교회의 일치 문제도 그렇다. 교회들"이 교리에 있어서 일치한다면 그리스도는 그 교회들이 하나되기를 원하신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순종하면서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와 하나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필자가 말하려는 것은 교회의 통일 문제가 아니라 신자 개인은 어느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수의 교단이 있다. 한국에도 많고, 화란에도 그렇다. 화란에도 신교 교단이 200개 이상이라고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만을 선택한다면 교회의 상점이 무슨 다를 바가 있겠는가? 신자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때 신자는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를 다녀서는 안된다.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에 다니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는 동일한 물건을 파는 상점과 다를바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상점의 단골손님이 될 수 있다. 손님인 경우 한 사람은 물건의 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싼 것을 사고 싶어할 것이다. 다른 한 사람은 값은 비싸더라도 꼭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상점 주인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의 상점을 이용하고자 한다. 교회를 상점처럼 생각한다면 어떤 교회에서 은혜의 선물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비록 그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어야 하지만 교회의 프로그램이 좋고 목사가 자주 심방해 주기 때문에 그 교회를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란 은혜의 선물을 파는 상점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교회란 바로 그리스도가 모아 주시는 백성이다. 이 때문에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



함께 모이지 않는 자라고 다 불신자는 아니다. 불순종하는 신자들도 있는 것이다.

떤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칙은 화란의 고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모두가 교회의 통일성을 보존하면서 교회에 참여하고 결합해야 한다." (Belgic Confession XXXVI II)

그렇다면 다른 교단의 교인은 어떤가? 같은 고백서가 그 문제도 다루고 있다.

"이러므로 그 교회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거나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 고백서가 참된 교회의 영역 밖에도 신자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께 모이지 않는 자가 다 불신자인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목사의 견해

그 목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늘을 주장하는 것은 참된 교회에 속하

는 자는 참으로 교인으로서 살아야만 한다면서 그들은 주일날 교회가 모일 때 집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꼭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그들이 참된 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항상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옳고 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때 나오지 않는자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그 목사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치 않았다. 사실 그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장하기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신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이 참된 신자라면 그리스도는 그들도 참된 교회에 모이도록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동안에 우리는 그들이 신자임을 말할 수 없다. 또 그들이 다른 교회의 교인이 된 동안에 그리스도

가 약속하신 은혜에도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한 그리스도가 은혜의 선물을 오직 교회에서만 나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목사의 견해는 앞에 인용한 고백서의 내용과 분명히 다르지만 그 목사는 고백서의 표현을 자기 생각에 맞추어 설명했다. 그는 계속하기를 그리스도가 명하시는 교회 밖에도 신자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들을 신자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커져가는 문제들

이 목사가 시무하던 교회는 목사가 설교 및 가르침에서 고백서를 떠나고 있음을 느꼈다. 당회에서 장로들은 목사의 견해를 물었고, 그 견해에 반대했으며, 마침내 목사와 장로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그때 당회는 목사에게 그의 견해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요구했다. 즉 목사는 자기의 사상이 성경에서 나오고 고백서와 맞는 것임을 증명해야 했다.

화란 개혁교회에서는 당회가 목사에게 그런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든 목사는 목사가 될 때 다음의 내용을 약속해야 한다. “당회, 노회, 총회가 충분한 이유가 있어 교리의 통일과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이 교리 중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견해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는 항상 기꺼이 그것을 하겠다”(한국 교회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모든 목사는 그가 당회, 노회 혹은 총회로 부

터 요구받을 때 견해를 설명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목사 자신은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목사는 자기 생각으로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술서를 써야 한다.

하지만 이 목사는 진술서를 쓰지 않았다. 그 목사의 생각으로는 그가 고백의 내용이 아닌, 고백서의 의미에 대한 당회의 견해를 반대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진술서를 쓰는 대신 자신의 사상을 공격으로 어떤 책에다 기술하였다. 그 결과 이 목사는 1984년 봄에 시무정지를 당하였다.

1984년 총회

1984년의 총회에서는 그동안 많이 복잡해진 이 문제를 토론했었다. 총회는 그 목사에게 자기 견해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그 목사는 말로 또는 글로 자기 견해를 옹호했다.

그러나 총회는 그 목사의 견해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 교리적 문제에 대해 총회는 큰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신자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약의 예로서 총회는 유다(창 38장), 나오미와 그의 가정(룻 1장)을 지적했다. 또 여로보암왕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벰엘과 단에서 신당을 세우고(왕상 12장)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아닌 거기로 갔을 때, 이 섬김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닌교로 죄였지

만, 그것이 이 모든 사람이 불신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수십년 동안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명령한 것을 지적하였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순절날에 유대인의 회당 옆에 기독교교회도 있었다. 그때 사도들은 회당에 속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했다(행 3:19이하). 또 로마에서 교회가 시작된 후에도 바울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신자로 대우하지 않았다(행 28:17이하). 이런 식으로 참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신자일 수 있다는 것 등을 예를 들어 총회는 그 목사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다.

1987년의 총회

불행하게도 그 목사는 이러한 총회의 설명을 듣기를 거부했다. 그는 계속 자신의 주장을 담은 책을 썼는데 항상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다. 결국 당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자기의 목사를 면직시켰다.

하지만 그 교회에는 그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사가 면직된 후 그들은 따로 모였고 그 목사를 계속 자기들의 목사로 인정했다.

그 지교회는 분열되었지만 화란에서 이 때문에 분열된 다른 교회는 없었다. 그러나 여기 저기서 그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음 총회에 1984년 총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편지를 썼다. 그 결과로 1987년의 총회는 다시 이

문제를 연구하고 판결해야 했다.

총회는 그 일을 간단히 처리하지 않았다. 닷새동안 총회는 그 문제를 토론했고, 그 전에 총회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140 페이지의 보고서를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 즉 교회헌법에 속하는 문제점과 교리적인 문제점들이 다 재론되었다.

결정은 1987년의 총회가 1984년에 내린 총회의 결정이 교리에 대한 옳은 결정이었다고 확정한 것이었다. 몇가지 점에서 이전 1984년 총회의 표현들이 고쳐졌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평가

이상의 내용이 좋은 이야기가 아님을 필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교회생활이란 그렇다. 항상 좋은 것만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화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키는 견해에 대항하여 교회의 교리를 올바르게 옹호하였다.

총회는 이 문제를 연구하고 결정하면서 두 가지를 다시 깨달았다. ① 신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라기보다 교회를 선택할 때에 그리스도를 순종해야 한다. ②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점에서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결과로 바로 불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개혁교회
든든히 세워지는
폴레믹스(논쟁)를 통해

화란 개혁교회에는 신앙과 교회생활을 다루는 잡지가 많다. 그중에 <개혁>이라 불리워지는 잡지가 있다. 전국적인 주간지로서 매 주 20페이지 이상으로 발행된다. 또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교회잡지도 셋 있다. 거기에는 지역교회의 소식과 노회 소식, 그리고 교회생활에 대한 글들이 실린다. 또 한국의 주보와 비슷한 간행물도 있는데, 그 수는 200개 이상이며, 매월 한두번씩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거기에서 주로 취급되는 것은 예배, 모임, 교우소식 등이지만 목사가 교회생활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다루는 것도 적지 않다. 그외에 화란 개혁교회에서는 개혁일간지도 발행하고 있는데, 그 신문은 국내와 국제 뉴스 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의 많은 문제도 다루고 있다.

이같은 여러 종류의 잡지 및 신문에서 '폴레믹스'란 용어를 가진 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성격을 가진 글이다. 폴레믹스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헬라어의 폴레오스라는 어휘에서 유래되었다. 폴레믹스 같은 글에서 필자는 그대로 자기의 견해를 설명하지 않고 남의 글이나 편지를 인용하고 비평함으로써 문제를 다룬다. 화란의 개혁교회는 다른 교단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교단 내의 사람과도 폴레믹스를 자주 한다.

최근 다른 교단의 잡지에 폴레믹스를 반대하는 글이 실렸는데 앞서 언급한 주간지 <개혁>에서 그것을 곧장 반박하고 나섰다. 폴레믹스에 대한 폴레믹스인 셈이다. 다음에서 폴레믹스에 대한 이 폴레믹스를 좀 소개하고자 한다.

역사

칼빈이나 다른 개혁자들이 폴레믹스의 글을 많이 썼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폴레믹스를 반대하는 소리도 항상 있어 왔다. 예를 들어 화란에서 처음에 분리된 두 개혁교회가 하나가 된 후(1892)에 폴레믹스는 잡지에서 단골 손님이 되어버렸다. 그 교회들이 자기의 역사적 배



화란개혁교회의 교육 선교사로 파송되어고 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경뿐만 아니라 자기의 습관과 전통도 그대로 가진 채 연합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명백한 의견차이 때문에 같은 교회내에서 잡지를 통해 견해를 밝히고 서로 비평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그때 한 노회에서 '같은 교회 사람들의 견해가 다양 하지만 그차이가 공격적으로 토론되는 것이 좋은 일인가? 이런 폴레믹스가 금지되면 화평을 위해 유익하지 않을까?'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것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두자'고 총회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총회(1896)는 그 요청을 거부했다. 그에 대한 주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 논쟁의 차이가 개혁신앙 교백의 범주 안에 있고 둘째, 이런 문제의 토론은 보다 더 정확한 지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래서 1896년의 총회는 폴레믹스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물론 어떤 사람이 교백서에 나타난 교리를 반대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총회는 토론 역시 그것이 교백의 한계 안에 있는 한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이 진실하게 서로의 견해를 비평함으로써 교회와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성장하는데 꼭 고무적일 수 밖에 없다고 총회는 확신했다. 때문에 총회는 개혁교회 안에서 논쟁의 자유를 계속 허락하였다.

폴레믹스를 쓴 20C의 유명한 개혁자 중 한 사람은 스킬더(K. Schilder)이다.

잡지에 실리는 논쟁문은 보다 더 정확한 지식으로 독자들을 인도할 수 있다.

그는 20년 이상 <개혁>이란 잡지에 논쟁문을 썼고, 그럼으로써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을 보여주었다. 한번은 다른 교파의 목사가 개혁교회를 비평했을 때 스킬더는 그에게 자기의 견해를 글로 발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스킬더는 그 길을 <개혁>이란 잡지에 완전히 수록하고 토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리하여 모든 독자들의 관심은 누가 옳은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폴레믹스를 반대하는 자가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은 교인들이 폴레믹스를 읽지 않도록 신학자들이 라틴어로 논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폴레믹스에 대한 비판

작년 말에 폴레믹스를 반대하는 글을 한 사람이 발표했다. 그 글에서 저자는 명백한 거짓말이나 이단적인 견해에 대한 논쟁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명백한 거짓말, 이단적 견해들이 논박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하면서 다른 문제도 있다고 했다. 즉 교회 안에서 토론되고 견해가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말이다. 그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폴레믹스를 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인용하고 공격적으로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로 그는 세가지지를 들었는데 첫째, 자주 이러한 문제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잡지가 많을 때 충분한 원고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것들인데 그것에 관한 플레믹스 역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회 밖의 사람이 받을 인상을 고려할 때 플레믹스를 반대하는 둘째 이유가 성립된다. 불신자는 교인들이 서로 반박하는 글을 볼때 조롱할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토론된 문제가 매우 조그만 것인데, 교인들이 세상의 중요한 문제를 무시하면서 작은 것만을 토론하는 것처럼 비칠 것이다. 그런 인상은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좋지 않다는 것이다.

플레믹스를 반대하는 세번째 논증은 그

러한 플레믹스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한 번 견해를 취한 후에는 플레믹스를 통하여 그것을 바꾸지는 않는다. 플레믹스를 통해 반대를 받은 자는 일반적으로 자기 견해를 이전보다 더욱 굳게 붙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이 그가 플레믹스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였다.

플레믹스가 필요한 이유

화란의 개혁교회 안에서는 신자는 불신자든 사람들의 견해를 공격적으로 비평하는 글을 흔히 쓴다. 따라서 교회에서 플레믹스에 대한 비평을 토론하는 것이 마땅하다.

출발점은 창 3 : 15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즉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적개심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대적은 글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것을 대적하는 글이 있으니 그 믿음을 옹호하는 글도 있어야 한다. 그때 플레믹스는 꼭 필요하게 된다.

그 적개심은 구약시대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도 계속된다. 엠 6 : 10-20의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 신자는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싸움을 위하여 무기를 주시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및 성령의 검'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싸움은 명백하게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플레믹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의문이 제기된다. 교회 안에서도 과연 플레믹스가 필요한가? 신자는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자조차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 또 신자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후자부터 먼저 생각해 보자. 사람은 글을 쓸때 본의 아니게 중요한 것을 빠뜨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제시한 내용은 일면적이고 그 글의 내용은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신자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신자는 현재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은 신자 안에 거하시고 성화에 이르도록 역사하시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일이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신자가 글을 잘못 쓸 때, 다른 신

자는 그것에 대해 반대의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성경에는 신자들이 서로를 훈계해야 한다는 명령이 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히 3 : 13), 또 신자는 그런 것을 통하여 새 것을 배울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시 141 : 5). 사도바울은 서신서에서 신자들에게도 훈계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는 신약교회 플레믹스가 시작된 셈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처럼 좋은 플레믹스는 교인들을 돕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플레믹스 반대에 대한 대답

플레믹스에 대한 반대는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교회에서는 논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저자가 쓸거리를 찾기 위해 플레믹스를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이유가 못된다. 그렇게 되면 중요하지 않는 주제를 논의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 분명해 진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한 플레믹스도 항상 가능하다.

교회 밖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하는 것이 플레믹스를 반대하는 다른 이유였다. 교회를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것을 위한 이유를 찾고자 한다.

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그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왜 신자는 못하느냐는 것이다. 교회 안의 플레믹스가 날카롭고 사람이 없는 경우 교회 밖 사람들이 이를



플레믹스는 의심을 제거하고 진리를 재확인하게 한다.

비판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한다' (딤후 1:25)고 말한다. 그러므로 플레믹스의 동기와 태도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신자들이 서로를 박대함으로써 불신자들을 교회에 오도록 막는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 불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며 어떤 문제에 대한 플레믹스가 마땅한지 알지 못한다.

플레믹스는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한 번 어떤 것을 쓴 후 올바른 비평이 나와도 자기 견해를 고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저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플레믹스가 소용없는 것은 아니다. 독자들이 저자의 그릇된 글을 읽으면서 혼동을 느끼고 오해를 할 그때 플레믹스는 의심을 제거하고 진리를 재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플레믹스를 통하여 사상이 발전될 수도 있다. 신자는 어떤 주제를 그전

보다 깊이 연구해야 하고 자기의 확신을 보다 잘 옹호해야 한다. 또 플레믹스가 거듭될 수록 신자들은 어떤 문제의 중요성을 더 잘 깨닫고 성경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날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라는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거기에 나오는 삼위일체란 표현도 고대 교회의 많은 플레믹스의 결과이다.

맺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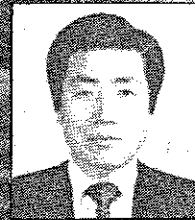
화란의 개혁교회에서 이상과 같이 플레믹스가 인정되고 있다. 오늘까지도 잡지에서 플레믹스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월에 감넨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오만(H. M. Ohmann) 교수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다른 교과 목사와 플레믹스를 했다. 또 그 신교의 다른 교수도 글을 썼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 면에서 비평을 받아서 그 글을 철회하고 말았다. ♣

대한 문과 기독교선교회

남미와 동남아시아교리포트

교지도자 세미나 및 선교대회

토탈미션이 절실히 요청되는 동남아시아



전 호 진
고려신학교, 미국웨스트
민스터, 폴리를 졸업했다
선교학 박사학위 현재 총
회선교개발연구원 원장
이며 고신대학 교수이다.

방글라데쉬

방글라 데쉬하면 가난, 질병, 천연재해, 태모 등을 연상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나라이다.

카트만두에서 인도의 칼카타를 경유, 수도 다카공항에 도착하니 동행한 서울 모개발회사의 직원이 1,000 달러 이상되면 신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출국시에 압수당한다고 일러준다. 까다로운 수속절차를 마치고 공항대합실을 나오니 제일 먼저 환영하는 자들은 우리 선교사들이요, 다음은 거지들이었다. 자동차 창문안까지 손을 들이밀고 구걸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방글라데쉬는 역시 가난한 나라라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였다. 많은 나라를 방문하였지만 여기처럼 구걸이 저돌적인(?) 곳은 보지 못하였다.

1971년 종교문제로 독립한 방글라데쉬는 과거 동파키스탄이었으나 1971년 독립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독립 후 지금까지 18번의 쿠데타가 일어났고 수명의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였으며 지금도 군복에서 민간복

혹자는 성령을 독자적인 위로 보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감화력으로 보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다.

성령은 성령이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제반 특성들을 고루 갖추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고 말씀한 것은 성령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인격적 기능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그것은 자연계에 생명을 발생케 하며 단장함으로써 창조의 사역을 완성케 하며 사람을 영감하고 특수한 재능을 부여하시며 속죄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영태케 하시며 권능을 부여하시며 제자들을 영감하여 성령을 기록케 하시며 교회를 배우게 하고 교회안에 내주하시며 교회를 가르치고 보호하시며 진리안에서 인도하신다.

‘삼위일체’의 교리에서 특별히 오묘한 신비는 삼위 중 각 위가 신적 본질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와 함께 하지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성부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쉽다. 지금은 성령의 주역시대라는 의미에서 볼때는 타당한 말이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존재양식에서 볼때는 타당하지 않다. 성부가 우주와 인간의 창조를 계획했을 때 성자와 성령은 함께 역사하였으며 성자가 세상에 오셔서 사역할때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셨으며 성령이 오셔서 역사할 때 성부와 성자가 함께 하신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의미한다.

또 예수께서 잡히실때 제자들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혼자 있게 될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는데, 성령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지금은 성령의 주역 시대지만 성부와 성자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으며 각 위는 신적 본질의 완전성을 소유하고 있다. 때문에 삼위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은 존재 할 수 없는 것이다. ♣

재세레 문제 선교지에서의



화란개혁교회의 교육 선교사로 파송되어 고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화란 개혁교회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임무가 있다. 때문에 화란 개혁교회는 이 선교활동을 여러방식으로 실행한다. 다음의 간단한 예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화란 개혁교회의 선교사들은 여러나라에서 사역한다. 대부분은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남미 브라질과 구라사오섬에서 남아에서, 아시아의 보르네오와 뉴기니아까지 파송되어 있다.

그런데 화란과 가까운 벨지움에서 활동하는 한 선교사는 천주교 교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본국 화란에도 우리는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그는 화란 로텔담이란 도시에 있는 이슬람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나라에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파송된 사람도 있다. 그들 선교사 모두는 약 30명 정도이다. 화란 개혁교회의 목사의 숫자가 약 240명이니 전체 목사 숫자의 10% 이상이 선교사임을 알 수 있다.

화란 개혁교회는 또한 선교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그들은 그곳 미개발지에서 첫째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며, 병원이 없는 마을에서는 병자들을 치료하는 간호원이다. 또한 그들은 영농기술보급과 그 지역의 언어를 개발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모두 12명 이상쯤 된다. 우리 화란의 개혁교회는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기도하는 일에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재세레 문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화란에 있는 목회자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목회해야 한다. 그들은 네델란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처해야 되며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때문에 3년마다 열리는 선교사 대회는 그같은

문제들을 토론하고 해결해주는 장이 되고 있다. 만일, 거기서 해결을 찾지 못하면 본국 신학교에 선교사들은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한 예로 브라질에서의 선교사들은 브라질의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에게 부딪혔다. 화란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개혁교회로 옮기는 사람은 재세례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브라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를 거듭했고 결국 선교사 대회에서 이 문제는 토론되지 않을 수 없었다. 선교사중 하나는, 브라질의 상황에서도 화란 개혁교회의 규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어떤 이는 브라질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재세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은퇴했지만 한때 캄펜(Kampen) 신학교에서 교의학을 가르쳤던 캄프하이스(Kamphouis) 교수는 이 문제에 관한 글을 썼다. 그는 선교사들의 견해를 논평하면서 교회사와 교의학에 대한 그의 지식에 근거해서 그 문제에 대해 대답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동시에 지난 호에 제시한 플레믹스에 관한 좋은 보기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물론 화란교회의 토론이지만 한국교회에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다른 교회에서 고신교회로 옮기는 자는 재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사실 이같은 세례에서도 불확실함은 남아 있는것 같다. 참고, 월간고신 1987. 4월호 p. 50). 그러나, 필자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필리핀에서 선교사역에 수고하

천주교나 기타 다른 곳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개종시에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고 있는 한국교회의 선교사들이 재세례를 인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브라질에 있는 화란교회의 선교사들과 같이 천주교 교인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이다. 아마 그들도 이 화란교회에서 일어난 논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역사

이러한 논쟁점이 생길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날의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재세례문제는 교회사에서 해묵은 논쟁이었다.

예를 들어 4C 말의 어거스틴(Augustin)은 이미 이 문제를 경험하였다. 그 당시 도나티스트(Donatist)라 불리는 사람들은 '세례의 정당성이 세례를 베푸는 자의 거룩성에 달려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세례를 베푸는 자가 꺾박 가운데에서 받음을 거부하거나 참된 신자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이 베푸는 세례는 모두 헛것이라면서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재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그들을 반대하여 세례의 정당성이 인간에게 달려 있



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라고 어거스틴은 말했다.

후에, 종교개혁시대에도 이 문제는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개혁자들과 함께 천주교를 반대하는 재세례파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천주교 그 자체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 베푸는 세례도 거부하였다. 그들이 내놓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세례가 거룩한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세례가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은 재세례파 사람들의 이런 입장을 반대했다. 그때 칼빈은 편지를 예로 사용했다.

편지는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편지를 쓰고 사인한 사람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 이처럼 세례는 비록 천주교에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베풀더라도 정당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참고: 기독교강요 IV,

15, 16-18).

나중에 화란의 개혁교회도 자주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해야 했다. '천주교에서나 재세례파에서 세례를 받은 자가 개혁교회에 들어가게 될 때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개혁교회는 재세례문제에 주의깊게 접근하여 결정을 내렸다. 즉, 다음의 3가지 규칙에 의해 세례가 베풀어 졌다면 재세례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첫째, 말씀에 대한 규칙인데, 세례는 3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물에 대한 규칙인데, 세례는 물로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권위에 대한 문제인데, 베푸는 자의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권위가 인정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 세가지 조건에 부합할 때에 재세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브라질에서의 문제

브라질에 있는 몇몇 선교사들은 이 오랜 대담이 브라질의 상황에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는데 여기서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대는, 역사적인 것이다. 아마 16C의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좋은 점을 발견했음에도 모르겠지만 20C의 브라질에 있는 천주교는 너무나 타락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이 타락된 교회의 세례를 더 이상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의 반대로 교의적인 것이다. 우리는 천주교의 교리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회를 참된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주교회에서 배운 세례를 인정할 수 있는가?'는 것이다.

세째의 반대는 실제적인 것이다. 세례를 다시 받지 않는다면 천주교에서 개척교회로 옮긴 사람은 자신이 계속 천주교와 관련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완전히 천주교와 분리시키기 위해 재세례를 베풀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논쟁에 대한 평가에서 캠프하이스 교수는 먼저, 앞에서의 역사적인 반대가 맞지 않다고 말한다. 15C와 16C의 천주교회는 오늘날 만큼이나 이단과 죄가 가득한 것이었다.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은 그것을 알고 천주교회는 불신앙과 우상숭배가 있다고 했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주교에서 주어진 세례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앞의 교의적인 반대에 대해서는 캠프하이스 교수도 천주교회가 참 교회로 인정되지는 못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례를 인정하는 이유는 천주교를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캠프하이스 교수는 이 토론에서 칼빈과 같은 성경적 요소를 지적한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불결하고 신앙을 버린 제자들로 인해 할례를 받은 것이 그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되지는 않았고 그들은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것은 10지파에게서 일어난 것이다. 그때 단과 베델에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경배했다. 이 잘못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할례를 했지만 하나님께선 한번도 10지파들이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또한, 2지파 가운데에도 타락한 제사장이 많았지만 요시아와 히스기야왕이 개혁운동을 시작할 때, 그들은 재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처럼 재세례도 필요치 않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가 다른 교회의 세례 베푸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될수는 없다.

캠프하이스에 의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데에 있다. 성례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또한, 천주교와 같은 교회들이 성례의 의미를 바꾸어 잘못 사용해도 하나님



의 임재를 없애 버리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 성례를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성례에서 공포하신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

캠프하이스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 세상에는 정부와 행정장관들이 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정부사람들이 잘못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재세례파의 견해이다.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정부의 직분을 항상 옹호했고 정부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잘못 사용할 때 그들을 인정했다.

또, 그것이 성경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은 벨전 2:13-18에 잘 나타난다. 즉, 정부 사람들이 잘못 행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직분에 임재하신다고 캠프하이스 교수는 주장한다.

아마 이보다 더 분명한 예를 하나 제시해 볼 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임무는 사도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맡겨졌다. 교리를 바꾸는 천주교와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 교회도 여러 잘못 가운데서도 하

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고, 그 교회 안에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도 있다. 그때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례에 있어서는, 세례를 베푸는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세례 말씀에 담고 있는 약속을 지키신다. 따라서 재세례는 베풀어지지 못한다.

앞에서 어떤 선교사가, 재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천주교와 관련된 것을 느낀다고 할 때 캠프하이스 교수는 그 같은 느낌은 이해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세례의 정당성이 베푸는 자의 거룩함에 달려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세례의 내용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재세례를 베풀어선 안되고 그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그 말씀이 약속이나 위협이 될 수도 있다)의 신실하심을 가르쳐야 한다. ♣

자녀들
예배에
참석하는



화란개혁교회의 교육 선교사로 파송되어 고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화란 개혁교회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부모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다. 즉 부모와 따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말이다. 아이들이 3, 4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지만 6, 7세가 될 때부터는 오전과 오후 예배에 다 참석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의 자녀들은 교회에 속한다는 확신 때문이다. 아이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언약의 일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나갈 때 그들의 자녀도 가능한 한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교회에서는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엡 6:1~4).

어린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킨다고 할 때 말은 쉽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화란 개혁교회는 이 문제를 여러번 심사숙고한 끝에 작년여 여기에 대한 책을 두 권 출판하였다. 책이 나오자 지난 봄에 화란 개혁교회의 신문에서는 그것에 관계된 토론을 6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다음 글은 그 토론에 근거된 것이다.

자녀 교육의 일관성

자녀들도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토론에서 단지 교회의 역할이 강조된 것만은 아니다. 물론 교회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의 요구에 관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자녀의 종교적 교육에 관한 첫째 책임은 교회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책임은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있다. 부모는 자기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출 12:26, 13:14, 신 6:6, 11:19).



화란에서는 개혁주의 학교를 설립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국민학교가 많다.

부모는 자기 자녀의 세례식 때 그것도 서약해야 한다. 그들의 서약 중 이런 질문이 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자라나는 동안 이 자녀를 구신약의 교리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는 약속은 그들 자신이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구신약 교리로 가르치게 한다는 약속은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이 약속은 화란 개혁교회로 하여금 많은 국민학교를 설립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가능하다면 학교도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화란에서는 개혁주의 학교를 설립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국민학교가 많다(월간고신 1982년 3, 4월호의 필자의 글을 참고하라).

이처럼 신앙 안에서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면 이 세가지 곧 부모, 학교, 교회가 관련되어 있다. 자녀의 교육에는 일관성

이 있어야 한다.

화란 개혁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토론될 때 이 세가지가 항상 거론되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세가지 곧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겠다.

교회의 임무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엔 우선 목사가 할 일이 있다. 예를들어 목사가 예배의 순서들을 잘 소개하고 자주 설명하면 어린이들에게 펍 유익하다.

대개 목사는 자기가 늘 사용하는 표현대로 예배순서를 소개한다. 이러한 표현에는 고리타분하고 문학적인 수사가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은 그러한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없다. 때문에 예배순서

목사는 본문을 적용할 때 어른을 위한 것만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어린이들의 생활에 중요한 문제들도 적용시켜야 한다.

를 설명할 때 아이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목사가 자주 예배 순서들의 의미를 소개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목사는 찬송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목사는 헌금을 소개할 때 교회가 그 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예배는 자녀들 뿐 아니라 많은 어른들에게도 참여하기가 더욱 쉬운 것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 설교도 아주 중요하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른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은 그 설교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쉽다. 그러나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의 눈으로 아이들도 바라본다면 쉽게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 준비하면 적용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어린이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목사는 본문을 적용할 때 어른을 위한 것만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어린이들의 생활에 중요한 문제들도 적용

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목사는 본문을 가지고 학생이 국민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설교하면서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목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목사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토론에서 어느 목사는 자기의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즉 목사는 설교 각 부분의 마지막에 항상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방식으로 그 부분의 주된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그들을 위한 부분이 나올 줄 알고 그것을 몹시 기다린다. 목사가 한번은 아이들을 위한 부분을 생략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목사에게 그들을 위한 설명은 어디 있느냐고 불평했다고 한다.

설교의 주된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할 때 또다른 유익이 있다. 그것은 어른들에게도 되풀이가 되기에 그것을 통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교한다면 모든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때때로 사람들은 교회의 조용한 분위기를 거룩한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예배의 분위기가 어떤 움직임에 의해 방해받는다 생각하기에 아이가 예배시간에 좀 움직이는 것에도 못견디는 맘으로 화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가 한 시간 이상 조용히 앉아 있기란 불가능하며 또 꼭 필요한 일도 아닌란 것을 알아야 한다.

예배시간에 있는 조그만 소란과 움직임은 교회의 생명을 상징한다. 어린이가 없는 교회에 움직임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조금 시끄럽더라도 어린이가 있는 교회는 그 앞날이 밝다.

학교의 임무

아이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아까 말한대로 화란에는 대부분의 도시에 개혁주의 국민학교가 있으며 시골의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서라도 그 학교에 가는 형편이다. 그런 학교의 시간표 가운데는 주간의 찬송이란 것이 꼭 들어 있다. 이 시간을 통해 매주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편이나 다른 노래의 한 절을 배운다.

앞서의 신문에서는 목사와 학교 선생이 여기에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학교선생은 주간에 아이들이 배운 시편을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목사는 바로 그 시편을 예배시간에 함께 부르도록 한다. 그때 참여한 아이들은 매우 기뻐하며 그 찬송을 신나게 부른다. 아이들이 변성되지 않은 맑은 소리로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은 정말 깊이가 있고 즐거운 것이 된다.

화란의 개혁주의 국민학교에서는 성경 이야기도 가르친다. 또 학교 교과 과정에는 3학년부터 '성경에 기록된 역사'라는 과목이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왕,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배운다. 이시간을 통해 구약과 신약의 차이

조금 시끄럽더라도 어린이가 있는 교회는 그 앞날이 밝다.



부모는 예배 후에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해야한다.

를 깨달았을 뿐 아니라 성경에 무슨 책들이 있는가를 익힌다. 이 모든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은 설교를 더 잘 이해하고 예배도 더 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모의 임무

부모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일은 말로 할 수 있고 또 행동으로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자녀에게 즐거운 날로 만들어 주기 위해 애를 쓴다고 이야기했다. 자녀의 주일 아침 식사에는 특별히 맛있는 것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아이들은 어릴때부터 주일날이 특별한 날임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다. 자주 자녀들은 '오늘이 주일인데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 겁니까?'라고 질문한다. 그때 부모는 '그렇지 우리는 교회에 가기 때문이란다'라고 대답한다. 이처럼 자녀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느낀다.

물론 부모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말만 해서는

안된다. 그대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부모는 자녀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예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중요한 또 하나는 부모가 예배 후 자녀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이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물어보아야 한다. 특별히 '설교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아이들은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부모는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설교가 의미하는 것을 설명한다. 또 그들은 설교가 자녀들의 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주일날은 부모들에게 자녀의 기독교교육을 위해 특히 바쁜 날이다.

부모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교회에 가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설교시간에 즐기거나 오전예배만 참석하고 오후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자녀에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그런 경우 자녀에게 교회에 열심히 나가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는 부모는 자녀들을 열심히 교회에 데리고 간다.

결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참석한 결과는 무엇인가? 그런 것은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많이 설명해도 아이



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을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은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고 부모는 자기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즉 부모는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가야만 하고 성령님은 그때 자녀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예배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어린이와 예배와 설교의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가지는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부모는 이처럼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함을 그들에게 행동으로 가르친다.

두번째로 자녀들이 예배와 설교에 대해

우리의 기대보다 많은 것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내가 직접 본 실례를 여기서 언급하겠다. 봉사하던 레이던(Leiden) 교회에서 교전 15:35 이하에 대해 설교했다.

그 설교의 주제는 장례가 기독교인에게 썩을 뿌리는 것이라는 어려운 내용이었다. 설교 자체도 쉬운 것이 아니었다.

두 주간 후에 장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뜻밖이어서 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 여덟살이 된 어린 딸이 자기 부모에게 그 설교의 내용을 말하고 그들을 위로했다. 그 아이는 설교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화란의 개혁교회는 자녀와 같이 교회에 가는 일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예배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생활의 표시인 것이다. ♣

올림픽 경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화란개혁교회의 교육 선교사로 파송되어 고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화란 신문에도 스포츠가 흥미있는 뉴스중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어떤 종목이든지 팔목상대할 만한 실력으로 플레이하는 프로선수들의 모습은 신문의 여러 페이지에 걸쳐 대서특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화란에는 이런 류의 기사를 전혀 취급하지 않는 신문도 있다. 바로 개혁교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그렇다. 프로스포츠에 관한 기사를 그 신문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처음에는 이 화란개혁교회의 신문에 스포츠 먼조차 없었다. 하지만 요새는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 두 번씩 스포츠뉴스를 실는다. 그 보도대상은 주로 아마추어 스포츠에 관한 것이다. 또 스포츠 세계의 여러가지 경기와 사건이 다루어지고 평가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런 기사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에 스포츠가 있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 해서 스포츠를 평가할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를 모르는 것이다. 그때 이 신문은 독자들이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스포츠에 접근하도록 큰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올림픽 경기는 어떤가? 물론 신문에 서울올림픽의 국제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에 대한 글도 많이 나왔지만 필자의 이 글은 서울올림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올림픽 그 자체에 대한 것이다. 1988년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인데 화란개혁교회 교인들은 이 올림픽에 대해 무슨 정보를 받고 있는가?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신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독교인으로서 현대의 올림픽경기에 참여할 수 있거나 아들이나 딸을 거기 참가하도록 허락할 수 있을까? 화란 개혁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살펴보자.

헬라시대의 올림픽

확실히는 모르지만 올림픽은 B. C. 776년경에 처음 실행



기독교인으로서 올림픽 경기에 참여할 수 있거나 아들이나 딸을 거기 참가하도록 허락할 수 있을까?

되었다고 한다. 그 대회는 헬라의 올림피아 지방에서 4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다.

처음에는 한 종목만 있었지만 나중에는 다른 여러 종목이 추가되었다. 그것은 달리기, 레슬링, 복싱, 5종 승마 등이었다.

올림픽의 한 종목에서 우승한 사람은 상으로 야자나무 가지와 올리브나무의 면류관(월계관)을 받았다. 또 그의 훌륭한 승리에 대해 시인들은 시를 만들었고 조각가는 그의 석상을 조각했다. 본래는 다른 것보다 영광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후에는 우승한 사람은 고향에서 많은 선물과 돈을 받았고 어떤 직위까지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올림픽 경기는 온 헬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온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림피아로 모여들었다. 헬라의 도시들은 서로 빈번히 싸웠지만 올림픽 경

기 때만은 전쟁을 중단했다. 도시와 부족사이에 휴전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 올림픽 경기는 상업적인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선수들 외에 구경꾼들도 많이 모였으므로 상인들의 가세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래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헬라 올림픽의 성격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데,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또 하나는 인간을 찬미하는 것이었다. 올림픽은 올림피아 산에 살고 있다는 제우스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제사장들은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 제단에는 행렬성가가 올려퍼지기도 했다. 또 승리자를 찬미하는 시는 우선적으로 제우스에게 감사의 뜻으로 바쳐졌다. 헬라 올림픽은 궁극적으로 종교적 절기였던 것이다.

그 대회의 두 번째 성격은 인간을 영

쿠베르탱은 청소년이 문제를 이기고 절도있고 오래 참는 버릇을 가짐으로써 자기 게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시인은 인간의 훌륭함, 인간의 용기, 그의 능력, 그의 지도력을 찬미했다. 조각가는 인간의 아름다운 몸을 영구한 것으로 만들었다. 또 승리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우리들은 그를 우상처럼 떠받들었다.

올림픽 경기는 시작 이후 1,000년 이상 계속되어 오다가 기독교인이 된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황제에 의해 금지되었다(AD. 394). 그것을 금지한 주된 이유는 이 경기의 종교적 성격 즉 제우스가 승배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구경꾼의 즐거움을 위해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했던 점이었다. 또 부도덕, 즉 나체로 연습하는 것과 동성애도 중요한 금지 이유가 되었다.

올림픽 부활의 목표

그후 1,500년 동안 올림픽 경기가 열리지 않다가 1896년에 처음 근대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이 올림픽 경기의 부활은 프랑스의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 남작의 공헌이 컸다. 쿠베르탱은 수년 동안 즐기찬 반대를 무릅쓰고 그의 꿈을 이룩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 그 결과

로 189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 회의가 열렸다. 거기서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1896년 13개국 약 300명의 참가자들이 아테네에 모였다.

쿠베르탱이 올림픽을 부활시키고자 한 동기는 그럼 무엇이었는가? 아까 지적한 대로 헬라 올림픽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진 것인데 그것은 제우스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쿠베르탱은 그 첫째의 종교적 동기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로 근대 올림픽은 종교적 성격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올림픽 경기는 참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두 번째의 성격, 즉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다. 쿠베르탱은 교육학적인 면에서 올림픽경기를 부활시키려고 했다. 당시 그의 눈에는 불란서 청소년들은 비활동적이고 게으른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들이 확실한 목표를 가짐으로서 게임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불란서의 청소년들은 세상에서 앞설 수 있기를 그는 원했다.

교육자로서 쿠베르탱은 청소년이 문제를 이기고 절도있고 오래 참는 버릇을 가짐으로서 자기 게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여기에 그는 훌륭한 수단으로서 스포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쿠베르탱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최소한의 목표로써 국제적인 스포츠 곧 올림픽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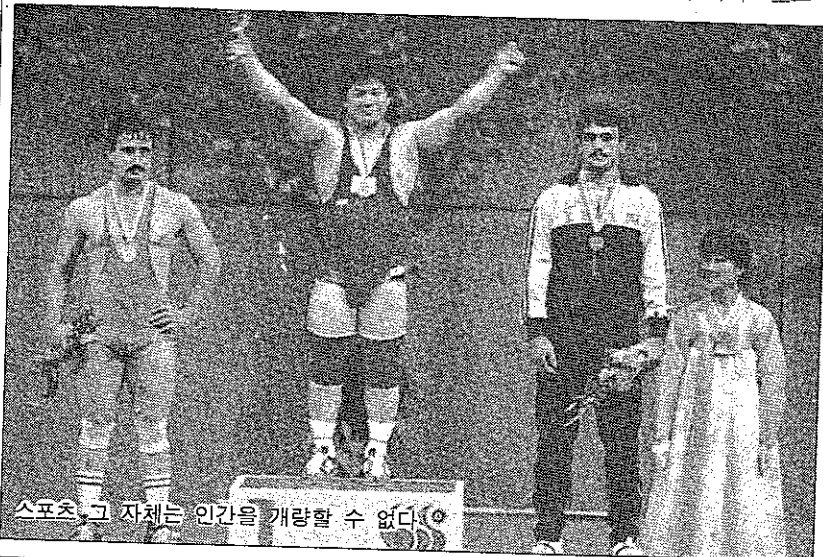
다.

쿠베르탱의 이 꿈은 인본주의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믿었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속에 있는 좋은 성격이 나타나도록 애써야 하는데 인간의 선함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훈련을 통해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올림픽 경기에서도 선해진 인간의 모습을 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많이 훈련을 받은 선수도 부패한 존재일 수밖에 없으며, 스포츠는 고스란히 그 모습을 보여준다. 스포츠 그 자체는 인간을 개량할 수 없다. 오늘날 올림픽에 대해 읽고 듣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날의 올림픽 경기

올림픽이 처음 개최된 후부터 그 경기의 성격은 크게 변질되어 왔다. 오늘날 뚜렷이 정착된 특징중 운동선수들의 프로화이다. 처음 쿠베르탱은 선수들이 아마추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그들은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취미로 스포츠를 하는 자들이어야 했다. 사실 그 당시에 스포츠는 일상생활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부자만이 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모두 사람들이 스포츠를 여가선용으로 즐기는 만큼 일류선수들은 대부분을 프로화 해 버렸다. 또 올림픽 경기의 참가자들은 특별한 훈련원에 오래 있으면서 특별훈련을 받는다. 정부는 그들의 훈련을 위해 예산을 짜고 막대한 재정을 투자한다. 그들이 국제스포츠 행사



스포츠 그 자체는 인간을 개량할 수 없다.

선수들 중 호르몬을 사용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스포츠 때문에 몸은 만신창이가 된다.

에서 승리한다면 큰 상을 받고 연금도 받게 된다. 참된 아마추어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서울 올림픽에는 처음으로 프로테니스 선수가 참가하게 된다.

두번째는 국수주의의 표면화를 들 수 있다. 쿠베르탱의 계획은 불란서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경기를 함으로써 자극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는 이 기회를 취하여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한다. 어떤 나라의 한 선수가 이기면 온 나라가 기뻐한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맞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 국가는 올림픽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우월을 증명하고자 한다. 한 나라의 승리자가 다른 나라보다 많다면 그 나라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처럼 소련과 동독은 올림픽을 통해 공산주의가 다른 정치체제보다 더 나은 것임을 입증하려고 애쓴다. 반대로 미국은 자기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체제가 가장 좋은 것임을 많은 승리자를 통해 증거하려고 한다. 또 보다 적은 나라들은 가능한 많은 승리자를 훈련시킴으로써 국위를 선양하려고 싶어한다.

이처럼 올림픽 경기는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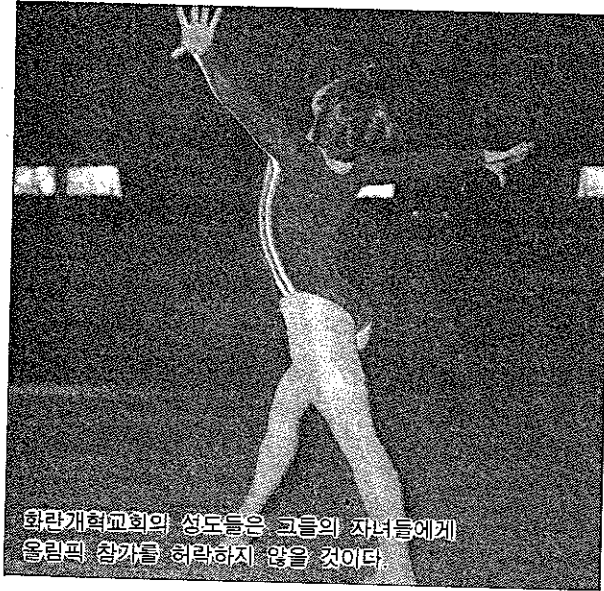
올림픽의 문제점

올림픽 경기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주로 대부분의 인류 스포츠가 갖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중 하나는 선수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선수들 중 호르몬을 사용하는 일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예를 들어 체조선수들 중에는 성장을 막기 위해 약을 먹는 사람이 있다. 사람의 근육은 어렸을 때 유연하지만 어른이 되면 점차 굳어진다. 그 결과로 그들은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운동을 나중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여자 체조선수들에게서 그런 현상은 잘 나타난다. 올림픽 챔피언은 체조의 경우 15살의 아이들이 보통이다. 4년 후 다시 참여하면 그때 문제가 달라진다.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 역도에서 남자들은 근육을 크게하는 호르몬을 사용한다. 어떤 종목의 여자선수들은 보다는 더 강력한 근육을 갖기 위해 남성 호르몬을 복용한다고 한다. 이처럼 스포츠 때문에 몸은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다.

또 어떤 종목에서는 이유가 좀 다른데에서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 그런 스포츠는 그 목표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복싱에 해당되는 것이다. 복싱의 목표는 상대선수가 더 이상 싸울 수 없도록 그에게 상처를 입히



화관개혁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올림픽 참가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는 것이다. 심할 경우에는 잘못 맞아 죽기도 한다. 매년 복싱경기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 많은 복싱선수들이 후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일도 있다.

이런 스포츠의 세번째 문제점은 주일성수이다. 다른 대부분의 스포츠처럼 올림픽도 일요일에 계속된다. 이 문제로 올림픽에 항의한 지는 오래되었다. 즉 1900년의 파리 올림픽에서 미국선수들은 주일날에 경기하지 않게 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진행자들은 듣지 않았다. 그때 미국 선수 중 몇 사람은 주일날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중 한 사람은 거의 확실한 금메달을 놓쳤다. 오늘날에는 주일날에 계속 경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도 않고 있다. T.V. 때문에 올림픽은 주일을 가장 중요한 날로 삼는다.

결론

사람들이 누구나 운동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또 여러 선수들이 그들의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것을 볼 때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올림픽 경기의 이론과 실제는 기독교인의 참여문제를 놓고 볼 때 대단히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화관 개혁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올림픽 참가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

개혁주의적 정치



고재수
화란개혁교회의 교육
선교사로 파송되어
고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서론

하나님 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이 대부분일 때 그 나라의 정부가 기독교적인 율법대로 다스리는 것은 가능한가? 그런 나라엔 우선적으로 화란이 필요하지 않을까? 따라서 그런 나라에서는 신자들이 기독교적 정치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전도를 위해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나아가 전도의 결과로서 인구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 될 때에 비로소 정부에게 기독교적으로 다스릴 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의 모든 개혁신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처지에 있다. 예컨대 화란의 경우에는 개혁교단 안에 개혁주의정치연합(Reformed Political Confederation)이라는 정당이 있다. 이 정당부터 소개하고 앞의 문제로 돌아가기로 한다.

역사

개혁주의정치연합이라는 정당은 1988년에 창당 4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이 정당의 배경은 그보다 앞서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정당의 정신적 아버지는 19세기의 크론 판 프린스터(Groen Van Prinsterer 1801-1876)이다. 19세기에 화란에 양원제 국회가 생겼을 때 크론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크론은 그 국회에서 개혁주의적 정치를 하려고 시도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어떤 의미로 크론의 후계

자였다. 크론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카이퍼는 이룩했다. 즉 카이퍼는 일반교인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 카이퍼는 개혁주의 원리를 실천이념으로 삼고 정당을 설립했다. 사실 이 정당은 화란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정당이었다. 또 카이퍼는 이 정당의 정치노선을 설명한 800페이지 이상의 책을 쓰기도 했다.

물론 이 정당의 지지자들은 거의가 개혁교회 성도들이었다, 하지만 1944년 개혁교회의 교인들중 일부가 면직되거나 교회를 떠나야만 되었을 때 정치에까지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은(이들이 지금 고신과 자매결연을 맺은 화란개혁교회이다) 떠나는 마당에서 '그들이 주일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월요일의 정치에 우리와 함께 협력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것뿐 아니었다. 카이퍼가 정당을 만들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원리들은 성경과 분리되어 적용되어 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혁교회 교인들은 그 당시에 적용된 많은 원리에 더이상 동의할 수 없이 그보다 더 성경적인 정치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1948년에 독자적으로 정당을 설립했다. 그 정당은 정치를 성경대로, 곧 신앙고백에 표현된 대로 하고자 했다. 당원들은 성경과 신앙고백대로 행하는 자이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부분 개혁교회 교인들이었다.

이 정당의 현황

이 개혁교회의 교인수는 화란 전체인구

카이퍼는 개혁주의 원리를 실천이념으로 삼고 정당을 설립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원리들은 성경과 분리되어 적용되었다.

중 많지는 않다. 비율로 따지면 그들은 한국의 고신교단보다 조금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이 정당을 지지하는 자는 비교적 많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의 후보는 자주 국회의원에 선출된다. 150명으로 구성된 하원에 개혁주의정치연합의 대표가 한명 참여하고 75명으로 구성된 상원에도 이 정당의 대표 하나가 들어갔다. 또한 지방의회 및 시의회에도 그 정당의 대표가 의원으로 참여한다.

이 정당은 월간지를 발행하는데 거기서 논의할 만한 정치문제를 다루며 구체적인 방향제시도 한다. 또 한 전직의원이 세 권으로 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그 정당내에 연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거기서 토론하고 연구한 결과로 소책자들을 많이 출간하였다.

의원들의 연구를 돕는 연구진도 있다. 그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어 전문가 일 뿐 아니라 의원과 함께 참여하는 공식 모임에서 내용있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개혁주의정치연합의 의원은 수적으

로는 빈약하지만 그들의 전문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이 정당 소속의 하원의 한 의원이 어느 신문사에 의해 가장 모범적인 하원 10명 중 한 사람으로 여러해 동안 계속 선정되고 있는 일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정부관

여기 던져진 질문은 개혁주의 정치연합과 같은 작은 정당이 왜 설립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다. 개혁교회의 교인들이 더 큰 정당에 소속되어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개혁교회 교인들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 곧 정부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다른 정당과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정치연합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정부는 나쁜 것을 반대하고 좋은 것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라는 확신이다. 이 생각은 개혁교회 정부관의 출발점이다.

이 정부관에 대한 반대

이와같은 개혁주의 정치연합의 정부관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세속화된 사회에서도 유익한 것임을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

시 말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찌니라' 같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지키면 좋다. 기독교인은 개인으로 복음을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속화된 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 사회에는 믿지 않는 자가 대부분이다. 그런 사회에서는 정부가 하나님의 나라로 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사회에는 중립적 정부, 즉 기독교를 따르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 정부가 옳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성취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민 중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정부가 기독교적으로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다. 전도를 통해 기독교인이 대다수가 될 때 비로소 정부는 기독교적 정부로서의 변모가 가능할 것이다. 그 전에는 정부에게 기독교 규칙대로 행하기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개혁주의 정치연합의 정부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수밖에 없다.

이 반대에 대한 대답

대답으로서 첫째로 이 정치관의 역사적 배경이다. 정부도 하나님을 소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참된 기독교인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때에 제시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세기의 크론이 그것을 주장했을 때 화란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리스도를 소중해야 한다고 크론은 생각했다.

칼빈과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때도 제바바 시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지만 칼빈은 그것을 요구했다(기독교강요 IV 20). 또 화란 개혁교회의 고백서에서 정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벨직신앙고백36), 정부는 신교를 핍박하고 있었다. 사실 이 고백서를 쓴 독사는 정부의 핍박을 받아 순교자가 되었다. 그래서 정부가 하나님을 소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제시한다고 하는 생각은 시대정신의 산물이 아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대답으로서 정치의 실재를 고려할 수 있다. 민주주의적인 사회에도 대다수가 그대로 결정한다는 규칙이 없다. 그런 것이 사실이었다면 화란정부가 하원에서 통과된 동의안을 그대로 실행해야 했을텐데 사실 하원이 받아들인 동의안을 정부가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미국도 이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대다수가 항상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국민이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나님을 소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자유는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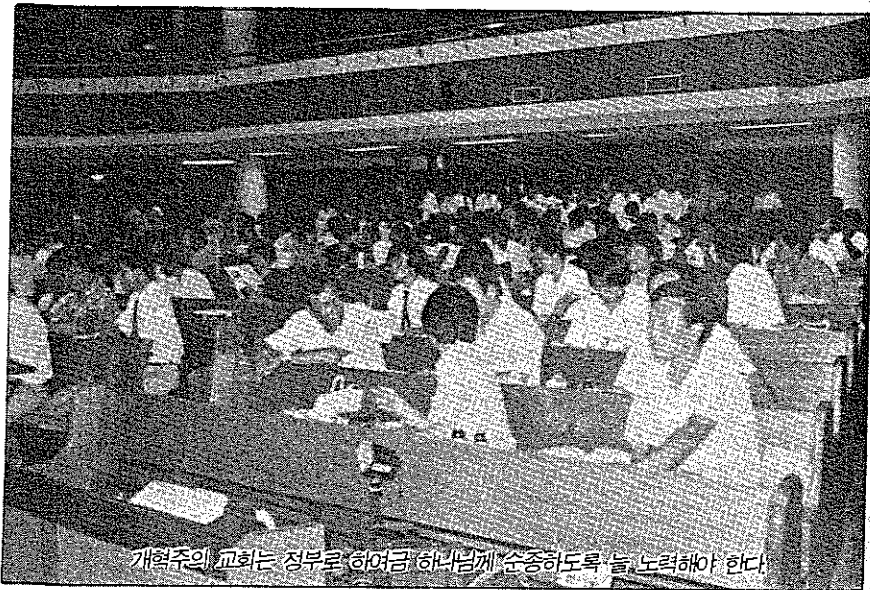
결정적인 것은 중립적 정부를 지지하는 자는 사실들 중 반만을 보고 받은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과 그들의 생각만을 고려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견해를 무시한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당신의 명령을 위해 안정을 필요로 하신다. 정부에 있어서도 그렇다.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다. 정부는 하나님을 소중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이 생각은 개혁교회 정부관의 출발점이다.

정부가 하나님을 소중해야 함은 구약에 이미 나온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불렀다(렘27:6). 하나님은 능력있게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다(단4:). 다니엘은 그 왕에게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고 말했다(단2:21). 그래서 정부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을 해 주어야 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롬13:3, 4).

신약은 이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도 강조한다.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있는 머리로 교회에게 주셨다(엡1:22, 한글개역판은 오역이다).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골1:16).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계1:5; 17:14).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다. 정부는 하나님을 소중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정부는 대다수의 뜻대로 그



개혁주의 교회는 정부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늘 노력해야 한다.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이 아니다. 정부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임무를 받았고 기독교인 국회의원은 그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결 과

이러한 정부관의 구체적 결과는 무엇인가?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지면 관계상 여기서 두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겠다. 지금 화란의 대부분 국민은 낙태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낙태를 원하는 여자는 그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혁주의정치연합이란 정당은 이 자유를 항상 반대해 왔고 정부에게 가장 약한 아이 곧 모태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하나님은 낙태를 금하신다. 그래서 정부가 하나님

의 사자로서 낙태를 허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정부에게도 결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완전하게 지키도록 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예는 이혼문제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증서제도를 허락하셨듯이 정부는 불신자를 고려하여 이혼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는 정부는 이혼하기 좋도록 제도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며 결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조직으로서 인정되도록 애를 쓸 것이다. 이처럼 개혁주의정치연합이라는 정당은 정부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자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취임사 /

신학대학원 정체를 찾아 그 의무와 책임 다할 때

허 순 길

신임 고려신학대학원장
고려신학교와 계명대 교육학과 졸업
화란 캠펠신학대학원 신학박사
호주 자유개혁교회 10년간 목회
지난해 가을부터 모교에 와 가르치고 있다.

존경하는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님과 이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총회장 박두옥 목사님, 주님의 교회 건설을 위해 봉사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과 이 신학대학원을 사랑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신앙의 동지 형제자매와 친애하는 교수 동역자 및 신학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신학대학원 원장 홍반식 박사의 퇴임과 본인의 원장 취임식에 이렇게 오셔서 큰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학교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절적 증거로 보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본 장로교회 목사 양성 기관인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의 책임을 맡겨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저에게 보여주시는 신뢰의 증표인 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사회를 통하

여 이 직책을 제게 맡기시는 분은 교회 배후에서 다스려 가시는 교회의 머리요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신학대학원은 순교신앙을 가졌던 설립자들로부터 물려받은 뚜렷한 이념이 있고 값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본 신학대학원은 그 전신인 고려신학교 창설시부터 개혁주의 신학 연구와 파수, 생활의 순결을 목표로 하고 개혁주의 교회건설에 봉사하는 목회자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학교는 순수신학 연구 기관이라기 보다 교회 봉사를 위한 기관이었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교회의 사랑과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학교 발전 과정에서 인간의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이 학교가 주님의 뜻을 성실히 받들고 만족한 교회 봉사에 임하지 못한 날들도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

주일 오후(저녁) 예배



고재수

화란개혁교회 파송선교사
고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다.

오후예배의 폐지

화란 개혁교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주일날 두 번의 예배를 드렸다. 곧 오전예배와 오후(저녁)예배였다. 예배를 두 번 드리는 것을 원래 교회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만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다. 오후 예배는 다만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헌법은 '목사는 주일 오후에 요리문답에 나오는 기독교 교리의 개요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고신교단의 자매교회인 화란 개혁교회는 이전에 간접적으로 언급되던 것을 헌법을 개정하면서(1978) 분명히 표현했다. 이제 헌법은 '당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두 번 불러 모아야 한다.'(65)고 되어 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이미 행해져 오던 관습을 재확인한 것이다.

주일에 두 번 예배드리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금년에 드러났다. 이전에 개혁교회였던 한 교파는 1988년 총회에서 오후예배를 더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교파의 헌법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당회는 주일에 가능하면 두 번, 그리고 적어도 한 번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를 불러 모아야 한다'(70조). 이 헌법상의 변화는 무엇 때문인가?

사실 그 근원은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더이상 오후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데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예배로

모이는 일이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다. 많은 예배당 앞에 있는 간판에는 교회 이름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왔다. 예배: 10시 원래 그 글은 페인트나 테이프로 뒷부분을 보이지 않게 지워 버렸다.

하지만 지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헌법상의 허락이 있지 않은 채였다. 헌법은 여전히 주일에 예배가 두 번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때 한 교회가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총회에 요청했다. 이렇게 총회는 이미 있었던 그 상황을 허락했다.

이 상황은 오후예배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며, 오후예배가 왜 중요한가를 연구하게 한 자극제가 되었다.

오후예배의 역사적 배경

오후예배의 역사적 배경이 구약시대의 성전 제사에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성전의 제사는 교회의 예배와 완전히 다르다. 성전에서는 제사장 곧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 직무를 수행했다. 예배에서는 제사장의 행동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것인데 거기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래서 설교는 없었다. 그러나 예배는 교제가 양면적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물은 없다. 또한 성전에서는 제사가 매

일 두 번 있었던 데 반해 교회에서는 주일에만 두 번 예배를 드린다.

오늘날의 예배가 구약에 그 뿌리를 둔다면 그것은 회당의 모임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을 때 찬송, 성경봉독, 기도 및(중중) 성경본문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회당에서도 유대인은 오전 및 오후에 모였던 것 같다. 하지만 유대인의 회당모임은 주일이 아닌 토요일에 있었던 것이다.

초대교회 시대(1-3세기)에는 기독교인들이 가능한 한 주일에 아침 일찍과 저녁 늦게였다. 그 시간을 택한 이유는 쉽게 알 수 있는데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으므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낮에 예배드릴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예배는 일하는 시간 이외에 드러진 것이었다.

교회는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주일을 공휴일로 받았다. 그때부터 예배는 주일 낮에 드러졌다. 하지만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교회 교인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행하지 않았으며 예배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이 적어도 오전예배는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충분한 이유없이 두 세 번씩 나오지 않는 교인에게는 벌을 주었다.

그 당시에도 3시나 4시에 시작하는 오후예배가 있었다. 6세기 무렵

교회는 그 예배를 강조했으나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교인들로 하여금 오전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오후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이후 참석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도 생겼다. 예배에서 설교가 더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꾸는 화체행사가 핵심이 되었다. 화체행사는 교인들이 나오지 않아도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서 교인들은 나와도 그저 구경만 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화체행사 그 자체는 하나님과 사제 사이에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중세기의 많은 교인들은 가능한 한 오전예배에 빠졌고 오후예배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예배의 핵심이 되었고 교인들은 더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다시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오후예배의 내용

개혁운동으로 생겨난 교회들에서 시행된 오전과 오후예배의 내용은 똑같지 않았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얼마 후 루터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부족함을 발견했다. 그래서 루터는 교인

들이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을 느끼면서 그들이 특별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오후예배에는 목사가 어떤 성경본문이 아닌 성경적 교리의 한 부분에 대해 설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터 자신이 목사들을 위해 일련의 모범설교를 썼는데 이것이 루터의 유명한 대 요리(문답)이다.

루터 뿐만 아니라 칼빈도 요리문답을 썼다. 또 루터파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개혁파 교회들에서도 오후예배 때 요리문답의 순서대로 기독교교리를 설교해야 한다는 규칙이 생겼다. 이 때문에 요리문답은 대체로 52부분으로 나뉘어졌다. 잘 될 경우 설교자는 1년 안에 요리문답의 내용을 다 설교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음 해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 목사는 다시 처음부터 요리문답의 내용을 설교해야 했다. 바로 이 방법을 통하여 교인들은 신앙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결과로 1986년부터 화란 개혁교회 헌법에는 설교자가 오후예배시에 요리문답에 나오는 기독교 교리의 개요를 설명해야 한다는 규칙이 생겼다. 하지만 그 규칙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다. 개혁 이전부터 교인들은 주일에 교회를 두 번 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다. 대부분 교인들은 오전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종교적 임무를 다 완성했다고 생각했다. 교인들이 오후

예배를 잘 참석치 않자 여러 곳에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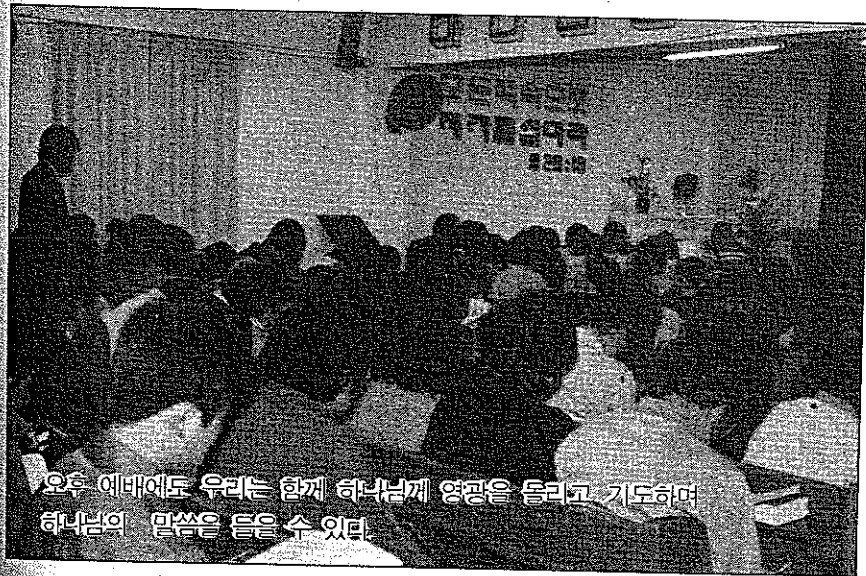
하지만 총회는 당회가 오후예배를 보존해야 하고 설교자가 기독교 교리를 다루어야 한다는 규칙을 여러 번 공포했다. 교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도 오후예배를 폐지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총회는 목사의 가족이나 교회의 사찰만 있어도 목사는 요리문답에 대해 설교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기로 했다. 또 노회는 그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오후예배를 보존하고 기독교 교리를 다루도록 돌보아야 했다.

그 결과로 화란 개혁교회에서는 오후예배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오후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기 시작했다. 1660년부터 주일에

두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또 오후예배 때 요리문답을 다루는 설교도 전통이 되게 되었다.

오후예배의 시간

주일의 두번째 예배시간이 성전에서 두번째 제사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성전에서 두번째 제물은 오후 3-5시 사이에 하나님께 바쳐졌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후예배가 직접 성전의 제사와 관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후예배를 3-5시 사이에 꼭 드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배가 성전의 제사에서 유래된 것이 아님을 보았다. 예배는 제사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두번째 예배시간은 어



오후 예배에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디서 나온 것인가? 그 시간이 천주교의 예배시간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천주교에서는 오전에 장엄미사를 하고 오후 3시쯤 오후미사를 행한다.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는 예배의 내용을 바꾸었지만 예배의 시간은 존속시켰다. 예를 들어 칼빈은 제네바에서 새벽예배 외에는 9시에 3개의 교회당에서 다 예배를 드렸고 오후 3시에 다시 예배를 드렸다. 시간적으로 오후예배는 천주교 오후예배의 연속이었다.

사실 개혁교회에서는 둘째 예배의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헌법에는 오후예배를 해야 한다는 규칙과 기독교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는 규칙은 나오지만 오후예배의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당회가 오후예배의 시간을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데로 결정할 수 있다. 대체로 다음 3가지의 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시에서는 오후예배가 거의 예외 없이 오후 4:30이나 5시에 드려진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오후예배의 시간이 주로 2:30이나 3시이다. 그 이유는 농부들이 주일을 쉬는 날로 지키지만 오후 5시쯤에는 꼭 젓소의 젖을 짜야하기 때문이다. 시골에서는 도시보다 오후예배를 일찍 드림으로 오전 예배도 일찍 드린다. 또 다른 경우에는 오후예배 시간이 저녁 7시이다. 하지만 그 시간은 아이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화란의 아이들은 가

능하면 6세 때부터 두 예배에 다 참석한다.) 7시 예배는 많지 않다.

실제로 나오는 교인들의 수는 오전 예배보다 오후예배가 더 적다. 예배에 한 번만 참석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오전 예배에만 나오고 그 결과로 그들 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 사람도 오후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또 건강 때문에 한번만 나오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오전 예배만 참석한다. 그래서 오전예배를 참석하는 사람 중 75% 내지 80%가 오후예배에도 참석한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오후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은 경고를 받는다.

화란 개혁교회의 생각에는 오후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오후예배에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주: (참고 출12:6, 29:39 왕상18:29 및 그 본문에 대한 주석. 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비추어 중요하다. 예수님이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었다. 이처럼 예수님이 참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제물로 돌아가신 사실은 성전의 제사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마27:51)).

4년제 학과 승격이 시급해



본 복음간호전문대학은 개교 20 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도약의 해로서 시대에 부응하는 간호사(간호원의 명칭은 1988년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로 변경됨) 교육을 위해 탈바꿈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탈바꿈을 시도하게 된 시대적 여건 및 그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간호교육의 역사를 고찰해보면, 우리나라는 1906년부터 세브란스병원 Esther Shield에 의한 양성소가 설립되면서 정규간호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의 역사는, 좀더 일찍 1901년 10월에 한국에 도착한 영국 성공회 선교사인 Emily Heathcote양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Cook의사와 함께 도착하여 다음 해인 1902년에 서울 정동에 조그마한 병원과 부인들을 위한 진료소를 개설하여 환자진료 및 간호와 더불어 전도를 하였으며, 그 후 많은 간호선교사들이 방방곡곡에 병원사업과 전도사업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그 후 해방을 맞이하여 1946년에 전국에 간호원 양성소가 간호고등학교로 개칭되면서 간호부를 간호원으로, 산파를 조산원으로 공식명칭을 개칭하였습니다. 1962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입학자격을 두는 3년제 간호학교로 승격되고, 1970년 간호전문학교, 1979년부터는 간호전문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한편 학사과정은 1955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설되면서 이어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에 간호학과가 설립되어 학사과정이 현재 전국에 17개교에 이르며, 1960년대에는 대학원과정이 설립되어 간호학석사가 배출되고있으며, 현재 대학원과정이 설립되어 있는 학교는 17개교입니다. 1973년에는 간호학박사과정이 시작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박사과정의 학교가 4개교로서 약80명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여러 분야에서 간호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호전문대학의 수는 43개교입니다.

간호 교육의 목표는 간호의 목표에 따라 달리하게 됩니다. 현대간호의 목표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인을 간호의 대상으로 하며,

한 부분만 부패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인격의 모든 부분이 부패된 것을 의미한다. 합리론적 입장에서 있는 철학자와 신학자들 가운데는 인간의 이성 기능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성을 통하여 진리를 인식하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다.

“전적부패”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영적 선을 행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한다. 범죄 후에도 인간의 자연적 성품에 자리잡고 있는 선의지(善意志)나 선한 성품을 개발하여 가면 종국에는 절대적인 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원래의 의를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죄와 자기 자신을 선호(選好)하는 인간의 마음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다(요1:13, 3:5, 6:44).

그렇다고 하여 인간이 진선미의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이상적 가치에 도달하려고 애도 쓴다. 인간이 비록 범죄함으로써 좁은 의미에서 원시적 의는 상실했을지라도 인간이 사탄이나 금수가 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

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께서는 범죄 후에도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취급하고 계신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이상 상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떤 학자가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도덕적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할 수도 인간이 질 수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전적부패”의 교리에 반대한다. 그러나 인간의 부패와 무능력의 원인과 책임이 인간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교리에 반대하는 또 한가지의 이유는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부패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다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사실 인간의 부패성과 무능력을 정확하게 통찰한다면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려 하는 일체의 시도는 포기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도덕적 선을 행할 의무 자체는 여전히 인간에게 부과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였으니 그것이 은혜의 방법이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은혜의 법인 것이다. 단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냐? 복음주의냐?



고재수

화란개혁교회 파송선교사
고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한다.

이 글이 내가 화란 개혁교회의 형편에 대해 한국의 자매교회 성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다. 내가 올해 계속 연재해왔던 이 시리즈에서나 화란 개혁교회가 어떻게 살며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몇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고신교단이 그 글들을 통하여 화란 개혁교회의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면 다행이겠다.

이 글을 써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월간고신 편집부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 나의 글에 대해 반응을 보여준 분들께도 감사 드린다. 그 반응은 참으로 고무적이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앞서의 것들보다 더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번 주제는 1988년에 특별히 논란이 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화란 개혁교회 안에서 수 년 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것은 우리가 개혁주의적이야 하느냐? 아니면 복음주의적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화란에서 빈번히 감론을박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여겨질 것이다.

고신교단은 교리적으로는 개혁교회이다. 고신 총회에서는 웨드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에 명시된 교리를 공적으로 채택했다. 그 교리는 분명히 개혁주의적인 것이므로 그것이 고신 교단의 성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복음주의의 영향도 여기

한국은 크게 받고 있다. 예컨대 특히 이곳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복음송이 그렇다. 그런 상황에서 개혁주의가 복음주의와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는나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 차이는 성격의 차이인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개혁주의는 지성을 강조하고 복음주의는 감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럼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복음주의의 장점

화란 개혁교회는 복음주의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

- 복음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무오성을 옹호한다. 이 세상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더우기 여러 신학교와 또 대학의 신학과에서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책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결과 무오한 것으로 믿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개혁주의자들은 이 점에 대해 전적으로 반가움을 표시한다.

- 복음주의자들은 창조를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수백만년 동안 스스로 진화된다는 진화론을 부정한다. 복음주의자

들은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도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법이 없다. 예컨대 생물학이나 지질학 등을 연구할 때도 진화론대로 설명하지 않고 성경적인 답을 찾기 위해 애를 쓴다. 개혁주의자들은 이같은 태도에 동의하지만 복음주의적 생물학자들이 성경을 사용하는 표면적인 방식은 곧잘 반대한다.

- 복음주의자들은 생활방식에 있어서 기독교적으로 행하려고 한다. 세상에서는 동성애와 낙태가 허용되어 있다. 많은 교회들은 그런 것을 더이상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음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그들 자신이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을 반대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명한다. 개혁교인들은 낙태반대운동에서 복음주의자들과 자주 협력한다.

- 복음주의자들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애를 쓴다. 예를들어 대학 캠퍼스에서 그들은 전도를 열심히 한다(Youth For Christ). 또한 선교를 위해서도 많은 선교단체를 설립했다. 개혁주의자들은 그들의 열심에 동의할 수 있지만 약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복음전도를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선교단체가 아니라 교회가 친히 전도와 선교를 행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복음주의는 여러 중요한 점에 있어서 개혁주의와 일치한다. 그렇지만 개혁주의는 항상 복음주의와 적

잖은 이질감을 느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

여기 복음주의 단체 하나를 예로 드는 게 좋겠다. 그 예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자유 복음주의신학교이다. 그 학교의 계간지에 그 근거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근거는 성경의 영감과, 모든 면에 있어서의 성경의 진리성과, 성경의 반대할 수 없는 통일성 등에 대한 한없는 고백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더 광범위하게 표현된다. “구신약 성경은 그것의 모든 표현에 있어서 성경으로 인해 영감된 신적인 계시이며 그 결과로 진리와 신앙에 대한 유일한 표준적인 근원이며 교리와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무한한 권위이다. 그것(성경)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실제로 올바르게, 진실하며, 반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성경)의 예언은 참된 것이며 성취되었거나 나중에 성취될 것들이다.” 이 말에 반대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으며 오늘날 반드시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개혁주의자들은 이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략된 것에 대한 것이다.

이 내용들을 잠시 개혁주의의 근본적 문서,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비교해 보자. 이 신앙고백의 첫 장은 계시 및 성경에 관한 것이며, 둘째 장

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셋째 장은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교리에 관한 것이다. 넷째 장은 창조, 다섯째 장은 섭리, 여섯째 장은 원리와 죄의 형벌, 일곱째 장은 하나님의 언약, 여덟째 장은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35장에 걸쳐 기독교교리의 완전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월간교신에 김성린박사가 신앙고백해설을 연재해오고 있다). 이것을 아까 인용한 복음주의의 근본적 표현과 비교해 보면 자유 복음주의 신학교의 근거는 개혁주의가 믿는 35주제중 하나뿐임을 알 수 있다. 복음주의는 그 근거에 있어서 많이 축소된 것이다.

물론 복음주의 운동 중에는 그 신학교의 근거보다 더 넓은 근거도 있다. 그러한 기초적인 표현에서 성경 외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 등도 언급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선택에 관한 항목이 없다는 것이다. 또 성례론도 종종 빼먹고 있고 적어도 유아세례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교회론도 일반적으로 무시되어 있다.

이 주제들이 왜 언급되지 않는가? 성경이 그 주제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선택, 성례식, 교회 등은 분명히 성경에 나온다. 그것들이 기초적인 표현에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복음주의가 이 주제에 대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운동에는 침



우리 청소년들이 즐겨부르는 복음송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부르
는 찬송곡시편과 비교해 보면 차
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례파 교인들도 참여하는데 그들은 유아세례를 부정하므로 복음주의의 기초에 유아세례에 관한 항목이 나올 수 없다. 또 복음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감리교는 선택교리를 부정한다. 게다가 교회론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므로 복음주의는 그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없다.

두 가지 보기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의 이 차이점은 실제적으로 자주 나타난다. 이에 대한 보기를 두 가지 들겠다. 그 첫번째 예는 화란 개혁교회의 캠펠 신학교 교수와 관련된 것이다. 그분은 Youth For Christ의 리더모임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나는 여러가지를 다룬 후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의 운동에 반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단체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도 있다.’ 그들은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그들은 싱긋 웃었다. 그들이 성경 본문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바울에게 싱긋 웃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무오한 성경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내용과 분리된 것이다. 내가 성경에 나오는 것 중 하나를 언급할 때 여러분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무오성을 고백하지만 그 다음으로 이 무오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무오성을 고백하는 것도 소용없다. 성경의 무오성을 고백하는 것은 그 성경이 내용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표현할 때만이 유의한 것이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서로가 동의하는 것이 아닌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의 위치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리라면 다른 단체들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활방식에서는 인정되어야 한다.

또 하나 예는 복음주의적 운동에서

나온 복음송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즐겨 부르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부르는 찬송 곧 시편과 비교해 보면 오늘의 복음송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복음송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소재가 많다. 성경 시편에도 그런 노래가 있다(시146:8).

하지만 복음송의 소재로서는 적절치 않은지 성경 시편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싸우는 자(시35:2, 3; 76편), 노를 발하시는 분(시78:21,31), 벌을 주시는 분(시80:5,6,12) 또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분(시34:8, 10; 90:7-12)으로 묘사한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찬송하는 자는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접근할 때 신중해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다가가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사랑과 나란히 하나님의 진노도 고백한다(II,1) 이 고백을 복음주의에서는 곧잘 무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신앙생활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다.

결론

그렇다면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개혁주의가 더 지성적이고 복음주의가 더 감정적이라는데 있는가? 그것은 실제로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 복음주의에서 창조

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그것에 대해 지성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다. 또 개혁주의자들 중 감정적으로 믿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지성이나 감정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차이는 성경의 완전한 내용을 고백하고 옹호하느냐 아니면 성경의 진리 중 좋아하는 부분만을 강조하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에 있다. 그때 개혁주의는 성경의 내용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자 한다. 복음주의는 그들의 관심이나 서로가 동의하는 부분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것만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옹호한다. 이처럼 복음주의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잘라 낸다.

개혁주의는 가능한 한 복음주의의 좋은 점을 인정한다.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과 성경의 윤리를 지키는 것 등이다. 거기서 우리는 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하지만 개혁주의는 복음주의를 따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후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번 연계를 마무리하면서 한가지 당부하고 싶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에 표현된 완전한 진리를 붙잡았으면 하는 것이다. ♪

(주) 농담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는 일이 여기서 비롯되는지도 모르겠다.